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9.14

미 증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끈질긴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급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광범위하고 끈질긴 물가 상승 압력을 확인한 소비자 물가지수 여파로 하락 출발. 이를 토대로 9월 FOMC에서 100bp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 강세, 국채 금리 급등하며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 더불어 임대료와 의료 서비스 부문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고정지출 확대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경기 침체 이슈도 유입되며 반등 없이 하락 지속되었으며 미-중 갈등 확대도 낙폭 확대 요인(다우 -3.94%, 나스닥 -5.16%, S&P500 -4.32%, 러셀2000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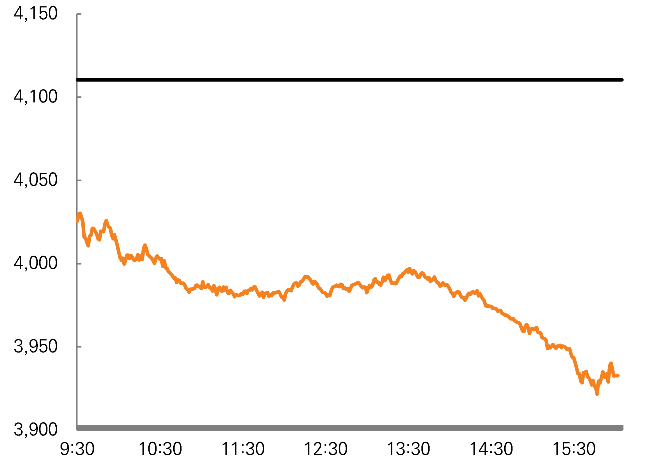
특이 종목

- 엔비디아(-9.47%), AMD(-8.99%), 마이크론(-7.46%), AMAT(-6.14%) 등 반도체 업종은 물가지표 발표에 따른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18% 급락. 아마존(-7.06%), 애플(-5.87%), MS(-5.50%), 알파벳(-5.90%), 메타 플랫폼스(-9.37%) 등 대형 기술주도 뚜렷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물가지표 발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큰 폭으로 하락. 특히 메타 플랫폼스 파이퍼 샌들러가 틱톡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해 인스타그램의 점유율 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하락폭이 컸음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3.25% MSCI 신흥 지수 ETF는 3.0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93.3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9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2.59% 하락. KOSPI는 2%대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광범위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부각되자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연준이 9월 FOMC에서 100bp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전일과 다른 양상을 보인 점은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도 미-중 갈등을 확대도 부담. 그렇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을 견인한 주거비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하향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장 초반 2%대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달러화의 추이와 함께 중국 증시의 변화에 주목하며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49.54	+2.74	상해종합	3,263.80	+0.05
KOSDAQ	796.79	+2.44	홍콩항셍	19,326.86	-0.18
DOW	31,104.97	-3.94	베트남	1,248.40	-0.10
NASDAQ	11,633.57	-5.16	유로스톡스 50	3,586.18	-1.65
S&P 500	3,932.69	-4.32	영국	7,385.86	-1.17
캐나다	19,645.40	-1.71	독일	13,188.95	-1.59
일본	28,614.63	+0.25	프랑스	6,245.69	-1.3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해석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8.3% 상승한 가운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예상치인 0.3%를 크게 상회했고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5.9%를 상회한 6.3%로 발표돼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에너지 가격이 지난달 4.6% 하락에 이어 전월 대비 5.0%하락으로 발표돼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했는데 가솔린 가격이 전월 대비 10.6% 하락하며 2개월 연속 급락. 더불어 항공료도 4.6% 하락해 지속적인 하락을 유지했으며 중고차 가격도 0.1% 하락. 그러나 천연가스 가격이 전월 대비 3.5% 상승했으며 전기 가격도 1.5% 식품 가격도 0.8% 상승. 의료 서비스 가격이 0.8%, 주거비용이 0.7% 상승했으며 신차 가격이 0.8%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견인

결국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가솔린과 항공료, 중고차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신차, 식품, 임대료, 의료 서비스가 상승하는 등 끈질기고 광범위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물론 이번 물가 상승의 거의 1/3을 차지한 주거 비용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하향 안정 기대가 높음. 이를 감안 물가가 비록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물가 하락 가능성이 높음. 실제 주거 비용을 제외한 물가는 0.2% 하락했으며 식품과 임대료를 제외한 수치는 0.4% 하락

다만, 시장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요 둔화가 이어져야 하기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그렇기 때문에 지표 발표 이후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크게 강세를 보였으며, 국채 금리도 특히 단기 금리 중심으로 급등. 이를 토대로 CME는 Fedwatch를 통해 9월 75bp 인상 확률은 100% 특히 100bp 인상 확률도 32%를 기록했으며 11월 FOMC에서도 75bp 인상 확률이 68%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

주식시장은 기대했던 물가 하향 안정세가 약화되고 끈질긴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한 모습을 확인되자 연준이 물가 상승에 맞서기 위해 금리인상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 속 기술주 중심으로 급격한 매물을 내놓으며 큰 폭으로 하락. 주목할 부분은 이번 물가지표를 통해 임대료, 의료 서비스, 계란 등 필수 식료품 가격 상승이 뚜렷해 소비자들의 고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향후 소비 둔화 가능성을 야기시킬 수 있어 경기 침체 이슈도 야기시켜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18% 급락

엔비디아(-9.47%), AMD(-8.99%), 마이크론(-7.46%), AMAT(-6.14%) 등 반도체 업종은 물가지표 발표에 따른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18% 급락. 아마존(-7.06%), 애플(-5.87%), MS(-5.50%), 알파벳(-5.90%), 메타 플랫폼스(-9.37%) 등 대형 기술주도 뚜렷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물가지표 발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큰 폭으로 하락. 특히 메타 플랫폼스 파이퍼 샌들러가 틱톡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해 인스타그램의 점유율 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하락폭이 컸음

어도비(-7.06%)는 BMO가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우려로 매출 추정치를 낮추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다우(-6.01%)도 제프리스가 구매 위험 등을 토대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JP모건(-3.47%), BOA(-3.60%), 웰스파고(-5.07%) 등 금융주는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된 여파로 하락. 특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자 충당금 확대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부담. 농업회사인 코르테바(+0.87%)는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로 상승. 트위터(+0.80%)는 머스크의 인수에 대한 주주들의 표결에서 찬성이 앞서자 상승. CF(+0.67%), 모자이크(+0.32%)는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러시아 발 분쟁 격화 가능성에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73	대형 가치주 ETF (IVE)	-3.48
에너지섹터 ETF (OIH)	-4.14	중형 가치주 ETF (IWS)	-3.64
소매업체 ETF (XLY)	-5.16	소형 가치주 ETF (IWN)	-3.75
온라인소매 ETF (EBIZ)	-5.55	대형 성장주 ETF (VUG)	-5.16
금융섹터 ETF (XLF)	-3.72	중형 성장주 ETF (IWP)	-4.26
기술섹터 ETF (XLK)	-5.31	소형 성장주 ETF (IWO)	-4.0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4.82	배당주 ETF (DVY)	-3.38
클라우드 ETF (CLOU)	-4.76	신흥국 고배당 ETF (DEM)	-2.94
미국 리츠 ETF (VNQ)	-3.82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2.07
주택건설업체 ETF (XHB)	-5.86	미국 국채 ETF (IEF)	-0.56
바이오섹터 ETF (IBB)	-4.50	하이일드 ETF (JNK)	-2.25
헬스케어 ETF (XLV)	-3.30	물가연동채 ETF (TIP)	-0.30
곡물 ETF (DBA)	-0.6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72
반도체 ETF (SMH)	-5.95	모멘텀 ETF (MTUM)	-3.1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608.02	-2.45	+1.01	+1.73
유틸리티	384.19	-2.69	+1.63	-1.14
헬스케어	1,477.00	-3.27	+1.56	-5.09
필수소비재	745.90	-3.31	-0.41	-4.81
소재	476.21	-3.54	+2.45	-6.61
금융	552.45	-3.77	+1.61	-6.40
산업재	777.27	-3.79	-0.08	-7.82
부동산	260.72	-3.84	-0.02	-8.51
경기소비재	1,239.14	-5.22	+1.80	-7.42
IT	2,307.27	-5.35	-0.00	-12.42
통신	178.33	-5.63	-1.26	-12.3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달러 및 중국 증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3.25% MSCI 신흥 지수 ETF는 3.0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93.3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9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2.59% 하락. KOSPI는 2%대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달러 약세가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 반영이 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수에 따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KOSPI는 2.74%, KOSDAQ은 2.44%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광범위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부각되자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연준이 9월 FOMC에서 100bp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전일과 다른 양상을 보인 점은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대만이 EU에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로비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대 중국 제재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라는 보도도 미-중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그렇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을 견인한 주거비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하향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향후 주거비가 안정을 찾을 경우 물가 하향 안정 기대가 높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장 초반 2%대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달러화의 추이와 함께 중국 증시의 변화에 주목하며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 상회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인 0.1% 하락과 달리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비록 지난달 발표된 8.5%보다는 둔화된 8.3%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인 8.1%를 상회.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인 0.3%를 크게 상회한 전월 대비 0.6%로 발표되었으며 전년 대비로도 5.9%에서 6.3%로 상승

8월 NFIP 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89.9나 예상치인 90.5보다 개선된 91.8로 발표

상품 및 FX시장 동향

단기 국채 금리 급등

국제유가는 물가지표 발표 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자 하락 출발. 특히 이로 인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전반적인 하락 요인. 그렇지만, 장중에 바이든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보충하기 위해 배럴당 80달러에 구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 줄이며 마감

달러화는 여전히 높은 물가지표 발표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최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물가의 하향 안정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왔던 점을 감안 예상과 다른 물가 상승 지속 발표는 급격한 되돌림을 야기. 유로화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후 파운드화와 더불어 1.5% 내외 달러 대비 약세. 역외 위안화를 비롯해 여타 신흥국 환율은 1% 내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호주달러, 캐나다 달러 등 상품 환율도 1%~2%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광범위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자 큰 폭으로 급등. 특히 이번 지표 결과를 토대로 9월 FOMC에서 100bp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단기물이 급등. 한편,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35배를 상회한 2.42배로,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인 67.8%를 상회한 72.1%를 기록해 장기물의 경우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음. 특히 30년물의 경우 약세를 보임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공격적인 분쟁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며 알루미늄이 상승하는 등 품목별 혼조 양상. 곡물은 미국의 수확량 전망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왔으나, 이날은 달러 강세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3%, 철근은 1.535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7.31	-0.23	+0.81	Dollar Index	109.871	+1.42	-0.31
브렌트유	93.17	-0.61	+0.65	EUR/USD	0.9973	-1.47	+0.70
천연가스	8.28	+1.84	+3.14	USD/JPY	144.54	+1.19	+1.22
금	1,717.40	-1.56	+0.04	GBP/USD	1.1500	-1.57	-0.17
은	19.49	-2.59	+8.02	USD/CHF	0.9616	+0.84	-2.24
알루미늄	2,313.00	+1.31	+2.32	AUD/USD	0.6730	-2.29	-0.07
전기동	7,868.50	-1.09	+2.41	USD/CAD	1.3171	+1.41	+0.14
아연	3,227.00	+0.95	+1.91	USD/RUB	59.7418	-1.38	-2.56
옥수수	692.75	-0.75	+2.18	USD/BRL	5.1867	+1.86	+0.65
밀	860.50	+0.09	+5.20	USD/CNH	6.9817	+0.92	+0.16
대두	1,478.75	-0.74	+5.61	USD/KRW	1,373.60	-0.52	+0.81
커피	220.70	-1.80	-4.15	USD/KRW NDF1M	1,393.32	+1.38	+1.0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16	+5.79	+6.65	스페인	2.861	+6.10	+3.90
한국	3.600	-2.00	-11.20	포르투칼	2.762	+6.40	+5.60
일본	0.245	-0.50	+0.30	그리스	4.246	+5.40	+0.80
독일	1.730	+7.70	+9.20	이탈리아	3.628	+3.30	-0.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